

## 결핵의 위기

글 **최인환**(최인환 결핵내과 원장)

결핵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시작하면서 첫환자와의 만남을 평생 잊을 수 없다. 열골이 예뻐 뿐 아니라 심성도 곱고 기독교의 신앙심도 깊은 부산아가씨였는데 치료 경력이 무척 복잡했다. 수년 전 부산에서 결핵을 진단받고 치료 초기에 아버지의 한약식으로 한약을 추가하기도 하고 결국 초기치료에 실패 후 이병원, 저병원을 돌다가 결국 재치료에도 실패하고 결핵병원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그래도 많은 남성들의 구혼에 시달리는 눈치였다. 한동안 소식이 뜸하던 그녀는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였다. 그동안 건강한 청년과 결혼도 하고 딸애를 한 명 출산하였으나 몸이 망가져서 입원하게 되었고 얼마 후 하늘나라로 갔다.

또 다른 결핵환자 부부가 있었다. 딸 하나를 두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부부는 밤늦게까지 포장마차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켰다. 결국 부부는 차례로 재입원을 하게 되고 폐결핵의 악화로 모두 하늘나라로 간 슬픈 사연이다.

이처럼 결핵은 초기에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만성으로 되고 고생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쉽지 않은 병이다. 증세도 기침 등 감기처럼 오기 때문에 기침이 호전되면 자의로 약을 중단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병에 대한 수치심으로 약을 몰래 먹다가 기침 등의 증세가 호전되면 약을 임의로 중단하여 내성결핵, 난치결핵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결핵과 감별해야 할 질환도 많다. 어느 50대 후반 남성분의 경우는 처음 가래검사에서 균이 음성이며 가슴사진상 콩알만 한 병변만 보일 뿐이었다. 결핵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에서 결핵약을 복용한 지 6개월 후 몇 배의 커진 가슴병변으로 결핵병원에 오게 되었고 여러 검사상 폐암으로 판명되어 타병원으로 전원했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어떤 경우는 서울의 유명병원에서 전원되어 온 경우로 1차 약제에 여러 부작용으로 내성검사도 없이 2차 약제로 치료도중 결핵병원으로 오게 되고 여러 약제의 시험적 투여로 다시 1차 약제로 무사히 치료를 끝낸 환자도 있었다.

결핵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온 가장 오래된 질병중의 하나이며 종합의학이다.

7천년 전 석기시대 화석에서 척추결핵의 흔적을 볼 수 있고 5천년 전 이집트나 페르시아의 미이라에서도 폐와 임파선결핵의 흔적이 나타난다. 삼국시대에 결핵을 '노채'라고 불렀고 조선조 의서인 '의방유취'에도 기록이 나타난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받는 예방접종이 BCG이며 결핵이 처음에는 폐에서 시작하나 몸의 어느 장기에도 생길 수 있는 병이다. 다양한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병이 가능하며 치료의 기간도 장기여서 환자나 의사가 모두 지치기도 하고 소홀할 수도 있다. 의사가 바쁘다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환자도 소홀히 대할 경우 치료 실패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보건소나 국립병원에서 치료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1950년 이후 항결핵약제가 개발 보급되면서 선진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결핵 발병률이 급속도로 감소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항결핵약제 개발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결핵이 만연된 국가들로부터 이민인구가 늘어나고 에이즈가 급증하면서 선진국에서 결핵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비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젊은 여성이 심한 다이어트를 하며 청소년들의 학습과중, 부실한 식사 습관 등으로 몸의 면역이 약화되어 청장년층에서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내성없는 초치료의 경우는 거의 치료되지만 항결핵제를 먹어도 효험이 적은 다제내성균은 발병하면 치사율이 70%에 이른다. 이들을 슈퍼 결핵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제내성 결핵 환자 4명 중 3명은 불성실한 약 복용 때문에, 1명은 외부에서 감염된 경우다. 그리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다제내성 내지 슈퍼결핵이다. 그러나 현재 다제내성 내지 슈퍼결핵의 경우에는 치료기간도 길고 약제부작용도 많아 치료의 효율이 낮다.

결국 결핵은 초기의 경우 적절한 치료처방과 규칙복약을 하면 대부분 치유되며 다제내성 여부를 조기에 감별하여 치료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다제내성결핵의 경우 결핵병원의 국제결핵센터 등에서 선진외국과 협조하여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여 앞으로 더 좋은 약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자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난치결핵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

---

이 글을 쓴 **최인환 원장**은 순천향대 의대를 졸업하고 국립마산결핵병원 결핵과전공의, 국립마산결핵결핵병원 홍보내과 사무관을 거쳐 현재 김천에서 최인환 결핵내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